

第2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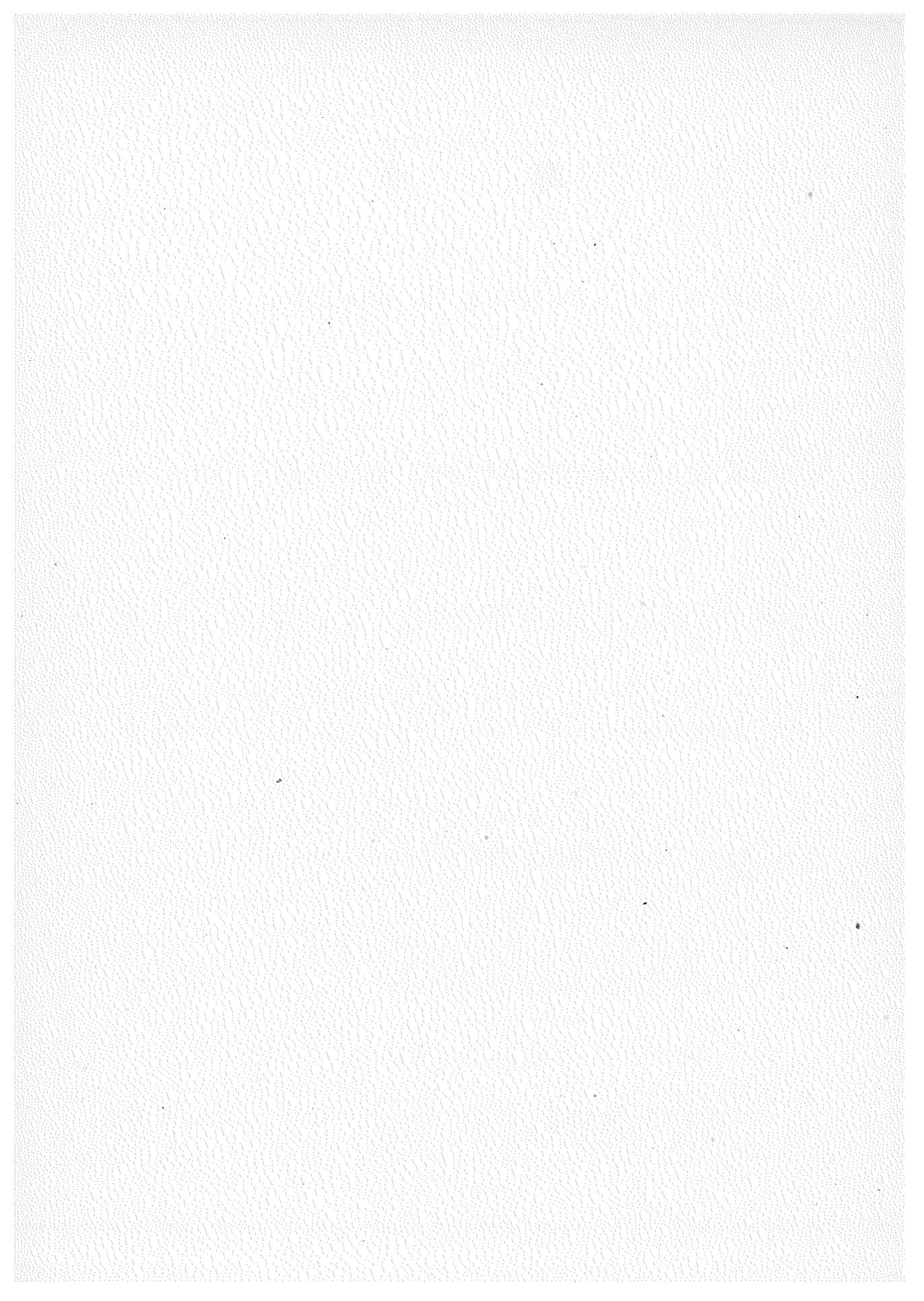
會 議 錄

(' 93. 7. 21 ~ 7. 22)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5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75
나)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7
다)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83
라) 교육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87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7월 21일 (수요일) 14시 31분

의 사 일 정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4. 교육행정 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정)
2.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4.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5. 교육행정 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4시 31분 개식)

● 의사과장 이영규

지금부터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 경과보고

(14시 32분)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과장 보고가 있기 전에 금번 정부 인사에 따라 7월 12일자로 도교육청 초등장학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학묵 장학관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부교육감 박동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7월 12일자로 초등장학과장으로 있던 채선병과장이 시내 북대국민학교 교장으로 전출을 하고, 음성 덕생

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던 김학묵교장이 후임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학묵과장은 청주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과학교육원 연구사로 2년, 근 3년 근무를 하고, 옥천교육청 장학사와 도교육청 장학사를 거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한 분입니다.

유능한 분이라고 해서 발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묵과장 나와서 인사후 들어감)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일 임시회 소집 및 집회 공고는 7월 12일 집행청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교육위원회 공고 93-8호로 7월 12일 공고되어 오늘 집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24회 의결안건 세건이 있었습니다.

교특회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특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6월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세번째, 도의회에서의 의안처리 결과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89회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조례로 공포되었습니다.

7월 2일자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 증명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충청북도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네번째 제25회 교육위원회 처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제출한 안건이 당초에 충북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과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안건으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은 '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관리 경비가 국고보조금으로 2억 1,997만원이 배정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총칙 제7조에 의해서 의결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의 의장단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장 조성훈, 부의장 김연권, 오운균 두분,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주용위원, 간사에 유영훈위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오운균, 한장훈, 김연권, 이병두, 박종기 이상 위원님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으로부터 추가의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7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별도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안은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처리에 앞서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 한 결정에 따라 전화기에 실시한 교육위

원의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계관의 답변중 책임있게 답변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정인영 교육감께서는 오늘 급작스레 공무출장중에 계시기 때문에 박동기 부교육감으로부터 말씀을 개괄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누차에 걸쳐서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이 보다 내실을 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보완해 주신 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6월 17일부터 사흘간에 걸쳐서 제24회 임시회의 때 질문에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족한 내용을 각 국별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본 계획은 양적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편찬한 것으로 양적측면은 '91년도 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6세이하에 아동수와 국·중·고등학교 학생수를 토대로 교육부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및 교원수의 변화 추이를 산정해서 이를 근간으로 학교환경사업 등을 수립한 것이고, 또 질적측면은 우선 국가 교육발전을 주도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통령 정책자문회의와 최근에 교육부의 교육발전 전망에 따라 우리 도에 교육방향도 일원화 하면서, 교육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해서 타도 및 일본의 교육과제들과 비교분석하여서 교육현안 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집행계획에 이를 반영코자 충북교육발전계획 책자를 받으신 분을 비롯해서 대학 교수들이나, 또 시·

군에 교육자문위원 등 600여명에게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 '93년 7월 13일자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서가 도착되시는 설문서 내용과 교육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농촌 학생의 학력저하 문제라든가,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 강화책이라든가, 또는 학교 기준체육종목의 보완 문제, 그 밖에도 교육현장의 비리척결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그 대책을 보완 실시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계획을 검토해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도 이 내용 속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전산망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이 '93년말 44%만 지급 확보를 했습니다만서도, 이를 전 학교에 구입 지원해서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고 교원업무를 경감토록 하겠으며, 또 열린교육방법의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열린교육 모델학교를 1시·군 1학교 신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열린교육은 오픈 에듀케이션(Open education)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한 20년전서부터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저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부교육감 교육에 임했을 때에 이 비디오를 봤습니다.

일본에서 열린교육의 장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봤는데, 그 담당계원에게 그 비디오를 입수하도록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개별화 교육, 능력별로 개별화 교육을 시켜서 수월성을 기르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현재 충주에 대소원국민학교하고, 또 오석국민학교, 음성에 하당, 삼성국민학교, 영동에 화곡국민학교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각 시·군에 1개교씩은 이런 모델 학교를 한번 세워 볼까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보다 현대화되도록 최신 수업매체를 더욱 앞당겨 보급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내용 중에 사업주관 부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며는,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석연치 않는 답변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육목표중 은근·끈기정신과 정의로운 사람의 육성은 이념목표에 구체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및 공동체 의식을 갖춘 자주적인 사람과 관련해서 조금 언급한 바가 있고, 또 지적한 대로 이념상으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목표로서 강조해가지고 백절불굴의 투지와 정의감이 내면화 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양양에 대해서도 그 방법과 내용 및 스스로의 실천 의지를 기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분야 또한 앞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복지와 사회교육발전 추세에 맞춰서 사회교육요원양성, 사회교육 체제의 강화, 주민제도 등에 관한 것을 반영을 하여 점진적으로 학교가 사회교육센터 역할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발전계획이란 우리 충북교육의 비전이나 발전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수많은 과정을 토대로 작성된 미래에 관한 행동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정의 변동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항상 수정을 거쳐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느니만큼 집행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위원님, 그리고 주민, 그리고 전문 교수, 교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또 실천하도록 노력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비전있는 충북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짐을 드리면서 보완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박동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보충질의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답변을 받아 주시지요.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의장 김영세

예, 박동기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장기발전 교육계획에 관해서 벌써 세번에 걸쳐서 이렇게 심도있게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그만큼 교육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렸던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맞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이었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그 설문이 도착이 되어서 제가 설문을 일일이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 있어서 여기서 질문을 더 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그 설문지를 보시려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두번째 문제에, 즉 발전계획의 기초는 1절 발전계획의 의의, 2절 미래사회발전 전망, 3절 국가교육시책 방향, 4절 충북권의 발전과 교육, 5절 충북교육의 변천과정, 6절 충북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 이것이 구성체제가 잘 됐느냐 하는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과거에 미처 보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얘기가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어떤 그 현안문제의 진단 결과, 현안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까라는, 거기에 대한 진단결과 원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현안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려는 그 원인을 꼭 잡아서 집어낸

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집어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가는 그런 적극성이 아쉽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입시위주교육이 그 현안문제다, 하게 되면 입시위주교육으로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좀 꼭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진단이 되어서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관료적인 교육행정이다, 하며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관료적인 교육행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교원의 전문성 취약, 왜 교원의 전문성이 이렇게 약하냐, 그 원인을 찾아서 이걸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찾아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수치도 아쉽습니다.

그냥 열악한 교육시설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제시해서 이런걸 보려는 좀 목표달성에 몇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시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쉽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그런 그 자료라든가,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나올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그 두번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세번째, 발전계획 의의에 대해서 서술이 잘 됐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었는데, 거기서 보시기를 이 발전계획은 어떤 시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책이 아니라면 어떤 그림인가, 막연한 어떤 그림을 그리신건가, 어디까지나 이 계획이 확정되며는 그것이 바로 교육시책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획을 세운다며는 일관성 있는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선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 같은 설문을 던져서 과연 주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거나, 익명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설문에 대한 답변, 또 어떤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 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

는 이러한 설문을 던져서 과연 효과적인 주민수렴 의견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그 바람직한 인간상 이것으로서 6차 교육과정이라든가, 대통령교육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21세기 사회, 그 인간, 그리고 교육 등을 참고로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크게 우리 한국인상을 보편적인 한국인상을 그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먼저 이상일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이 되어서 말씀인데, 충북인상의 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좁은 한국에서 충북인상이 뭐 따로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대답할 거리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를 한다고 할 때 뭔가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데, 보편적인 한국인 상이 있으면 거기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특별히 충북으로서 뭐 특수한 그 어떤 인간

상 이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즉 충북인상의 정립은 꼭 필요하며 이것은 어떤 그 설문지 몇 개 던져서 과연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라든가, 혹은 토론회 등을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러한 그 몇 번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만이 이러한 충북인상의 공감대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이 했다는 것은 좀 더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충북권의 종합발전계획을 지방자치, 경제발전, 문화창달에 관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서술했는데, 내용의 적정성이 어떠한, 하는 말씀이었는데, 물론 장기발전계획이니까 그랬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께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 반영을 시켰는가,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여섯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설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6차 5개년, 아, 교육과정 교육 목표와 교육발전의 구상,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을 토대로 충북교육의 이념 목표를 서술했는데, 그 교육목표에 진술내용이 좋으나, 나쁘나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사회의 특성에 대비한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두번 질문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북인의 자질로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충북 사람들은 상당히 느리고, 적극성이 부족하고 이런데, 아까 부감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어떤 그 진취적인 인간상이라든가, 혹은 그 개척자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즉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그 바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번째 설문에 대한

의문입니다.

즉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지역화 교육과정의 운영, 새로운 수업매체 활용, 열린교육의 도입, 특별활동의 활성화, 평가방법의 개선, 특수재능아 교육, 독서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내용에 범위 제시는 잘 되었으나,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한 것은 발견 학습이라든가, 탐구학습이라든가, 열린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흔히 얘기되는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학 ”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사회 교육과 뭐 특활반 운영같은 것 이런 것이 모두 지역사회 운영과 학교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학교 운영으로 잘 되며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그, 물론 지금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학교인가 지역사

회 연구학교가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마는,그러한 연구시범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지역사회의 연구시범학교가 좀 활성화 계획이 없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또 아울러서 그 학생들의 평가를 할 때 순전히 교과평가만 하는데, 교과별 절대평균을 따져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교과별로 학생들의 그 개별 학습, 열린 학습 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과별 우등생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국어만 잘하는 놈도 거기에 대해 우등생을 주고, 미술 잘하는 사람은 미술 우등생을 준다는가, 그렇게 교과별 우등생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받고, 또 행동발달에 대한 우등생제도, 우등생하며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인간적으로 전인교육을 하는 마당에 행동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든가 할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등상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십번째 질문입니다.

사회교육은 사회교육 시설, 사회교육 질적 발전이라든가, 학교, 가정, 사회 연계교육 등으로 개괄하였습니다. 내용과 방법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 등을 학교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사회교육은 앞으로 점점더 중요해 지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보지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학교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설정되고, 조직되고, 지도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보다 다양화 하고 자율화를 겸하고 하는 그 사회교육요원 양성제도 이런 것이 보다 강화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제가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분 보충질의.....

● 권혁풍 위원

조금 덜.....

● 의장 김영세

조금 덜 되었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조금만, 몇 개만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러면 스물두번째 설문으로서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체계로 인화중심의 민주행정 구현, 행정장비의 현대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재정확보, 사립학교 현안문제의 해결 방안을 진술했는데,내용과 방법이 잘 됐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 단위, 혹은 지역 교육청 단위, 여기에 물론 인사자문위원회라는게 뒤져 있으리라고 예상이·드는데, 과연 예상대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인사자문위원회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인사문제를 다루고 하고 있는지, 또 범을, 관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어떤 범을 집행할 때에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표에 가장 최저기준에 불과하다고 저는 평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상의 어떤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해석에 융통성을 좀 부여해 줘야 하지 않느냐, 법이라는 것은 최하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그 법만 요구한다, 그럼 그 이상 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학교에다 어떤 그 재량권을 주던가 해서 법이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돼야 교육위원회도 필요한 거고 교육청도 필요한 것이지 법만가지고 따진다면 법있는대로 그 거야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무슨 그 법 해석도 필요없고, 그냥 법만 보고도 그대로 하면 된다면 교육청도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물세번째인데요.

인화중심의 민주행정구현으로 학교장 중심의 경영자율화, 장학방법의 쇄신이라든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든가, 교원 잡무경감 방안을 서술했는데 내용과 방법은 어떠냐, 여기

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이걸.

교원의 일반 및 직무연수는 각종 사회교육 기관중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이수해서 권위 있는 이수증을 갖다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어떻겠느냐, 청소년 교육지도자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전환의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물네번째 질문으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며는 업무 전산화로서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교육현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배치시키고, 그래서 교사의 업무량을 좀 더 그 요새도 보드시피 상당히 그 잡무가 보고사항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많답니다.

업무를 경감지원해서 현장중심 교육행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어떻겠냐, 즉 교육행정기관에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으로 배치시켜서 현장중심 교육행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물여섯번째, 교육재정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교육재정의 확보, 교육재정의 효율적 투자 방안을 기술했는데 내용과 방법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보니까, 각종 교육 자산을 활용해서 재산수익률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평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재원을 들여서 보다는 확대시켜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비를 최대한 절감시켜서 학교현장으로 배분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 의장 김영세

아직.....

다 됐습니까?

● 권혁풍 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다 제가 여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며는 지방자치시대에 교육계획 수립은 당연히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서 주민과 교사와 학생과 전문가가 공개적인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의 설문 통계라든가 이런 것으로서는 여론조성과 조정이 전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수삼차에 걸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렴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또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적인 요구들이 통정되고 수렴될 것이며, 이것이 계속되고 반복됨으로써, 비로서 바람직한 교육문화가 정착되고 개화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서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권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의 규칙에는 1인 발언 시간이 20분으로 되어 있고, 보충질의는 10분이 되겠습니다.

그 규칙을 잘 유념해 가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 부교육감 박동기

아니 질문하신 권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가 양케이트를 던진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케이트를 던져드릴 때에는 여러위원님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나, 또 자문위원들이나 이분들에게 드렸을 때에 의견을 좀 첨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권위원님께서 지금 두번째서부터 스물여섯번째 질의하신 이 양케이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는데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저 권위원님 지금.....

● 부교육감 박동기

양케이트에 대한 질문인데,

● 의장 김영세

예, 알았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의장 김영세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준비시간을 여기서 주어가지고 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답변하도록 할까요, 어떤 방법을 발언하신 권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 권혁풍 위원

저는 당장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의장 김영세

저 질문 내용이 다양해서 바로는 대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때도.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는게 좋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다음 기회에 또 답변을 받으니까?

● 의장 김영세

다음 기회에 답변하시는 방법, 아니면 서면답변을 받는 방법.

● 부교육감 박동기

서면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 권혁풍 위원

<p>그 저만 들어도 되겠습니까?</p> <p>● 부교육감 박동기 글쎄, 그때 인제</p> <p>● 의장 김영세 아니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p> <p>● 권혁풍 위원 다음 회기때 보고해 주시는게 어떻 까 합니다.</p> <p>● 의장 김영세 어떻게 다음 회기때에 지금 질문사 항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p> <p>● 부교육감 박동기 다음 회기때요?</p> <p>● 의장 김영세 예,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되 셨습니까?</p> <p>● 부교육감 박동기 예.</p> <p>● 의장 김영세 예. 그렇게</p> <p>● 부교육감 박동기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p> <p>●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p>	<p>들어가지지요.</p> <p>본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 획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 여 많은 사항을 조언도 하고 지적도 하였습니다.</p> <p>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조언이나 지 적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에 반영시 키리라고 믿으며, 21세기를 향한 충 북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여 기서 오늘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p> <p>(“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p> <p>예, 이의 없으십니까.</p> <p>예, 이상으로 그러면 21세기를 향 한 충북교육발전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p>
	<p>3.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계 확안</p> <p>4. 충북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 (15시 12분)</p> <p>● 의장 김영세 다음은 관리국 소관의 안전인 의사 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p>

<p>획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북 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p> <p>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제 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관리국장 잠시 지체)</p> <p>지금 이미 배포해 드린 것은 오늘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1항이 2 항이 됩니다.</p> <p>그리고 먼저 2항이 3항이 됩니다.</p> <p>(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p> <p>● 관리국장 신재철</p> <p>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p> <p>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p> <p>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청주시 가경 동 660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하 하였으나, 그 위치에 가칭 충북공업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청주기계공업 고등학교 매각 계획을 취소하고자 의 안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p>	<p>(끝에 실음)</p> <p>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p> <p>두번째, 충북공업고등학교 가칭입 니다.</p> <p>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p> <p>정부의 실업계 학교육성계획에 부 응하며 1995학년도에 늘어나는 학생 을 수용하고, 첨단학과를 설치해서 2 천년대에 필요한 유능한 기능인을 양 성하고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교육기 회를 확대하고자 공고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p>
<p>(참 조)</p> <p>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p>	<p>(참 조)</p> <p>3. 충북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p> <p>(끝에 실음)</p> <p>이상으로 충북공업고등학교설립계 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 의장 김영세</p> <p>예, 수고하셨습니다.</p> <p>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 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p> <p>5.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p>

의 건

(15시 1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에서 계속하여 보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는 먼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 계획 취소와 청주혜화학교 이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 계획 취소는, 당초의 이전 목적은 내부시설의 노후화와 구식화로 효율적 실습이 어려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최첨단 시설을 확보해서 우수기능인력을 양성코자 그 목적을 1991년 1월 17일 기계공고 동문회의 이전 건의서를 접수해 가지고 '91년 4월 10일부터 '91년 6월 28일까지 이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91년 8월 20일 위

치변경계획안을 확정하였었습니다.

그 후 '91년 12월 14일부터 '92년 12월 22일까지 약 1년여에 걸쳐서 부지매입 2만 8,604평을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2년 10월.....

아, 그 중간인 '92년 10월 27일 도시계획 시설 지적승인 및 고시를 했고, '93년 2월 23일과 '93년 3월 16일 2차에 걸쳐 매각입찰을 실시한 바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 4월 9일날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측에 매입의사 타진을 중용해 봤으나,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두군데 저희들이 매입의사 타진을 한 이유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처음에는 매입의사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그 의사를 개진하여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이 유찰되는 바람에 매입을 중용했으나, 이에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매각지연에 따른 학교장 및 동문회에서 “현위치에 현대화 시설을 69억이 소요되는 투자를 해다오”하는

건의문이 들어 왔었는데 투자소요액은 검토후에 예산에 반영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학교장 및 동민회의 건의문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청주기계공고 이전 취소의 사유는 먼저 기계공고 매각이 불가능했으며, '95년도 수용계획상 신설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즉, 청주 신산업기술 도시구역내 설립키로한 충북공고를 청주기계공고 이전 부지에 설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청주 신산업기술 도시의 건설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저희는 불가불 '95년도 수용계획상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충북기계공고를 설치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거기 충북기계공고가 아니라 충북공업고등학교 아닙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의장 김영세

그것 정정하십시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충북공업고등학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동민회의 건의문하고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의 공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주혜화학교 이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4. 교육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본 건중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앞서 설명들으신 충북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과 같이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며, 또 대단히 중요한 교육현안인 바, 청주혜화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예의 검토하셔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질의·답변도 역시 제2차

<p>본회의에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참고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도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 취소에 따른 동 재산의 처분취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p>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상일, 이재희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p> <p>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p>
<p>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25분)</p> <p>● 의장 김영세</p> <p>그러면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p> <p>이상일, 이재희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p>	<p>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p> <p>예, 이의 없으시지요.</p> <p>그러면 이상으로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p>
<p>○ 출석위원수 : 11명</p> <p>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p>○ 출석공무원 : 17명</p> <p>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현,</p>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 2.
-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 별첨 3.
- 교육행정 사무처리상황 보고 : 별첨 4.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7월 22일 (수요일) 10시 30분

의 사 일 정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결
2.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의결
3. 교육행정 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4. 기타안건 처리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질의에 대한 답변
3.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4.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결
5.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 설립계획안 의결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
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금일은 제1차 본회의시 권혁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청주기계공고 및 청주혜화학교 이전과 관련한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들으신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충북공업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 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조금 회의 순서를 바꿔서, 어저께 권혁풍위원께서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다음 회기로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요번 회기에서 모두 질의를 마치기위한 이러한 과정에서 권혁풍위원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듣기로 한 답변을 오늘 먼저 그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수고스럽지만 나오셔서 권혁풍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어제 권혁풍위원님께서,

저희들이 7월13일자로 발송한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설문서”를 내드렸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26번까지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설문 2번과 관련하여 “충북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제시함에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그 대책을 찾아가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하지않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시된 현안 과제가 첫째가 교육본질 훼손이고, 둘째가 열악한 교육시설 및 환경이고, 셋째가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교육행정이고, 넷째가 교원의 전문성 취약, 다섯번째가 학교제도의

비효율성으로 그 원인은 충북교육발전계획 26쪽에서 29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첫째 교육본질의 훼손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또 두번째 열악한 교육시설 및 환경은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에 입각하고, 세번째 비민주적인 교육행정은 현행의 행정의 지원기능보다는 관리 행정위주로 운영됨에 따르고, 네번째 교원의 전문성 취약은 교원양성 체제와 처우 및 복지미흡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학교 제도의 비효율성은 공·사립간의 격차등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제에 대한 직접, 간접 변인들은 다양해서 가시적으로 그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그 대책은 31쪽부터 232쪽에 명시한 제2장에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 및 지표, 제3장에 충북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4장에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체제의 합리적 운영등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질문, 두번째 설문 3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하는데 설문으로 해결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또 질문 12번째, 설문 29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교육발전계획의 수립은 당연히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서 주민·교사·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질문지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 두가지 질문을 같이 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질문 2번과 12번은 유사하므로 일괄 답변드리자면 충북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키위해 91년도 이후 학부형과 교직원이 참석해서 매년 개최되는 교육행정 간담회시 각종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키위해서 충북교육발전계획 초록을 93년 2월6일과 4월13일, 5월25일 3회에 걸쳐서 유인물을 작성·보고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를 개최해서 했으면 더

욱 바람직하겠습니까다하는 잘 아시다 시피 이 과제가 단순과제이면 공청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과제가 48가지로 돼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청회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책으로 설문서를 받는 것이고, 또 이 설문서를 받아도 완벽한 의견 수렴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행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위원님이나 주민이나 또는 전문교수, 교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고 실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3번에 설문 5번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에 중복인상의 특성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중복인상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내용하고, 또 질문 5번째, 설문 10번과 관련하여 “중복인의 자질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진취적 인간상인 개척정신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이 질문들을 묶어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지난회기에서도 이미 이상일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실천목표에 반영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으로 설문내용이 집계되면 좋은 그 고견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이를 토대로 실천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4번째, 설문 6번과 관련하여 “현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어떻게 반영시키겠는가”하는 답변입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은 총량적 전망만 제시되고, 각 부처별로 아직은 구체화된 것이 발표되지 않았고, 단지 그 93년 7월3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산업체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공고생수를 재학생의 10%수준에서 2천년대까지 20%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도는 잘 아시다시피 93학년도 현재 인문계 고교생이 3만 6,400여명이고, 실업계 고교생이 3만 3,270명으로 이미 실고생이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직업과정을 합한다고 하면 현

제도 50대 50이 돼있습니다.

그 순수하게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로만 따진다고 하면 우리 충북 교육발전계획 156쪽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95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사항들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좀더 구체화되고, 또 현실화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 6번째, 설문 15번과 관련해서 “교수 방법의 개선인 발견학습, 탐구학습, 열린교육의 도입은 결국 지역사회 학교가 활성화되면 해결될 것으로 아는데, 지역사회 학교의 연구 시범학교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입니다.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방안인 역시 발견학습이나 탐구학습이나 열린교육의 도입과 발전이 지역사회학교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학교가 활성화돼서 궤도에 오르려면 이러한 학습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진천에 있는 덕산 중학교하고 청주농고를 도지정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시범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실화 방안과 확산방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7번째, 설문 15번과 관련해서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결과에 대한 시상을 교과별로 또 행동발달등으로 시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답변말씀을 드리면 학습결과에 포상문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교과별 포상과 행동 발달에 따른 시상은 현재도 국·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실시를 하여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상내용이 어느 교과가 우수해서 시상한다고 적고 있고, 또 선행상 봉사상등은 교과우수와 관계없이 그 실적에 따라 수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상의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8번에 설문 20번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회교육은 목표, 내용, 방법등을 학교 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설정을 하고 조직해야 하므로 사회교육 전문요원양성 방안등이 제시돼야 하는데 누락되었는 바, 그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 말씀드리면 사회교육을 영역별로 분류해 볼 때, 앞으로는 학교 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조직되고 지도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회교육전문요원양성에 관한 권한이 사회교육법 제 17조 및 제20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도의 경우에 직접 교육부 산하인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사회교육 지원 예산 또한 전체 교육 예산의 불과 0.16%에 해당하는 미미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다만 도내 사설학원장에 대해서만 매년 1회씩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손은 닿지 않는 것으로 이렇

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보다 더 확보되고 권한 위임이 확대해 나간다면 질의하신 대로 아마 성취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9번째, 설문22번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인사 자문위원회가 있는가, 또 인사 자문위원을 두어 인사문제를 다루도록 융통성있게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법 이상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량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말씀입니다.

답변 말씀드리면 현재 도교육청에는 인사에 관한 자문기관인 인사위원회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학교장에게 이미 주임교사 및 임시교사 임용 등의 대부분이 위임되어 도에서는 승진, 전보등과 같이 위임할 수 없는 사항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10번째, 설문 23번

과 관련해서 “교원의 일반적인 복무·직무 연수를 국가가 인정하는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증을 받아 활용하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획은 참말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교육감님께서도 몇번 이런 문제를 논의할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교사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어느 기관이든지 가서 자기가 자유롭게 재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만 가지고 자격증만 갱신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상적인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도는 바람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제도적인 이런 좋은 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질문 11번째, 설문24번과 관련해서 “각급 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가급적이면 교육현장으로 이동 배치시켜 교사의 업무를 경감 지원해서 현장 중심 교육행정이 되도록 했으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업무처리의 전산화 및 행정장비 현대화로 인한 휴인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서 일선학교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않는 6학급이하 소규모 국민학교의 경우, 교원 업무 경감과 교원행정업무의 전문화 및 교원 지원체제 확립 차원에서 사무직원의 배치 내지 증원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력증원 억제와 기본방침과 현재와 같은 열악한 교육재정하에서의 전면배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신중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 13번에 설문 26번과 관련해서 “각종 교육재산을 최대한 활용 확대시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현장으로 돌려줄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제정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재산관리에 의하여 발생한 각종 수입은 최대한으로 학교에 재투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발전적인 과제나 참신한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설문서에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수고 하셨습니다.

저 권혁풍위원, 지금 답변에 뭐 만족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10분간만 하시죠.

● 권혁풍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드렸던 질문에 그 현안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원인이 다 명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명시가 됐습니다.

뭐 “입시위주교육이다, 그래서 그렇다, 교육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입시위주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대답이 참 막연합니다.

입시위주교육이 교육본질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인데, 입시위주교육의 원인이 뭔가를 이걸 찾아야죠.

그래서 왜 입시위주교육이 되느냐,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잘못된 교육관이라든가, 뭐 이런것을 찾아서 어떻게 부모를 참 부모교육, 여기서 말하는 부모교육들이 많이 뵈는데, 뭐 어떻게 시켜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고, 더구나 요즘에 그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는 보충수업을 전혀 하지 않겠다” 참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면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해 놓으시고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되는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이럴때 이런거를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그 보충수업이 참 누누이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됩니다.

입시위주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충수업인데, 보충수업이 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러한 보충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방치상태, 아니면 그냥 뭔가 좀 도리어 부추겨주는 그런 그 경향까지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낍니다.

이럴때 이게 정말 입시위주교육의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교육본질로 하고 있는거나, 말만 그런거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하는, 옳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이러한 용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계획만 아주 그 멋있게 그림을 그려놓지 말고 그림을 그렸으면 하나라도 한 발짝이라도 용단을 해서 실천하는 이러한 시범을 보여야 일선에서도 따라가지, 교육청

에서부터 벌써 그냥 그림만 막연하게 그려놓고서, 아 화려합니다.

그걸 시행을 안하고 방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일선에서는 맥이 빠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박동기

뭐 입시위주교육이라고 해서 이걸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섬세한 내용까지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학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겠나하는 이런 면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모의 학생들에 교육관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포괄해서 입시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상한 말씀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뭐 교수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앞으로 21세기의 교육의 방향은 능력별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헤쳐나가는 이런 교육의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서책 또는 교수의 논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수업문제,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충수업도 보충수업의 본연의 목표대로 지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소위 지진아, 지진아를 일정한 궤도에 올릴수 있도록금 보충수업을 해야 할텐데, 이걸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수학능력고사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에 맞춰 보충수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그 권혁풍위원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본인도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권혁풍위원께서 지금 보충질의한 내용은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입시교육의 병폐에서 가장 지금 그 병리로 나타나 있는 것이 소위 파행적인 보충수업문제인데, 이 문제를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대한 교총에선 “9월서부터 절대 교사들이 보충수업에 관여치 않겠다, 보충수업 안하겠다”는 결의가 나왔습니다.

또 교육감님들의 그 의사로서도 이게 어느 정도 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충북교육감께서도 앞으로 이런 보충수업은 하지 않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언명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청주시내만 하더라도 지금 각 학교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보충수업 다 계획하고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충수업의 그 진의대로 그야말로 지진아를 위한 부진아를 위한 이런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거나, 이게 아니고 입시제도는 수학능력시험으로 개혁이 돼가는 마당에 여전히 과거의 입시교육정책에서 보는 이와 같은 참, 보충수업이 그대로 존속돼 있는데, 감독관청에서는 이것을 일선 학교교장 재량으로 맡겼다고 해가지고 방관할 것이냐, 교육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권이 발휘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애깁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2학기에 가면 우리가 예견하기로는 심각한 갈등현상이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웬고하니 대한교총에서, 이 교사들의 모임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충북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교총의 결의 문제와 지금 배치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게 진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결구도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예상하여 보진 않았으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히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안하셔도 되니까, 이러한 면은 바로 감독관청에서 확실한 교육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선학교 교장들이 자꾸 뭐 “교장재량에 맡겼는데 하겠다” 한다고 내비두고 “교장재량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로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차라리 보충수업비를 양성회시켜서 육성회비로 올리세요.

지금 육성회비보다 공식적으로 받는 교납금이 육성회비보다 보충수업비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공공연히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히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p>● 의장 김영세 그러면 저 이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 이것으로 마치시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p>	<p>있었으나, 동건은 청주기계공고 이전에 따른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학교의 이전계획취소건에 대하여 먼저질의·답변을 한 후에 관련의 안 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돼서,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을 하겠습니다</p>
<p>● 부교육감 박동기 감사합니다.</p>	<p>3.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보고 의 건</p>
<p>● 의장 김영세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p>	<p>(11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의견을 상정합니다.</p>
<p>● 부교육감 박동기 예, 감사합니다.</p>	<p>질의는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 취소관련 사항을 먼저 하고, 다음에 청주 혜화학교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p>
<p>● 의장 김영세 권위원님 양해하시죠?</p>	<p>그러면 먼저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 취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p>
<p>● 권혁풍 위원 예.</p>	<p>(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재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p>
<p>● 의장 김영세 그러면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발전계획”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고 다음은 의안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안처리는 당초 의사일정 계획상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 획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되어</p>	<p>● 이재희 위원 이재희위원입니다.</p>

제가 지난 7월 16일 충청일보에 대서특필된 “충북교육정책 혼선, 법규 이해 부족, 여건파악 소홀” 이런 그 제목하에 아주 대서특필된 이런 신문 보도를 보고 교육위원 이전에 이 충북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연실색했습니다.

물론 이 신문내용을 100% 이 교육청에서는 순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에 어떤 항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 타이틀 자체가 법규이해부족, 여건파악이 소홀하다는 것은 신문을 보는 사람마다 교육청에 대한 지탄이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청주기계공고 이전이 충북교육청에 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좀 짚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참 이 여염집을 팔고 사는 것도 아니고 큰 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인데, 물론 이 보고에 의하면 91년도서부터 이 계획이 수립이 됐고, 또 그동안에 정권이 교체가 되고 부동산

의 그 시가 변동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교섭을 한다든지 어떠한 로비를 해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취소한다는 이 보고를 듣고는 몇가지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는 그 신문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에 어떠한 항의를 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또 하나 문제는 93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 결과 제장상 조치 그 현황을 보면은 회수, 변상, 환불, 세입조치, 추정 이렇게 해서 21건에 2,546만원의 그 이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기계공고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기타수수료만 해도 이 액수보다는 거의 근사치로 나갈텐데, 이 내용 보면 변상 한건에 129만원 또는 환불에 30만원 이런 미미한 액수도 일선에 변상조치를 하고 징계 조치를 하면서 과연 정당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잘 안됐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그 국고 손실을 내고 이 취소하게 되는 때는 그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회에 법에 있던 없던 보고는 교육감선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실무자인 관리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사실 공고를 이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충북의 관심사니까 교육감께서 우리 의사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 기계공고 이전은 앞으로도 거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도시발전계획에 의하면 다시 또 거론이 될 건데 이게 취소한 이후에는 다시 거론하지 않을런지, 아니면 좀 여유를 뒤 가지고 내년이나 또는 내후년에 좀 현재 기계공고를 좀 증축하는 걸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본다면 이전이 타당하다고 하면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성급한 취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일위원과 김응복위원이 동시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상일위원 먼저 하시죠.

● 이상일 위원

이상일위원입니다.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 백지화 보고를 듣고 선뜻 납득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와 적어도 몇차례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데,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된 이유만을 이제와서 설명하는데,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교육문제는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각급기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주기계공고 부지 문제

를 유관기관과 긴밀히 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한 일이 있는지, 전연 그런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매각을 하려다가 안되니까 그냥 취소하려고 하는건지, 유관기관과 협의한 일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학교용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매각에 앞서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매각도 용이하고 토지대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기계공고 이전문제 백지화상태에서 충북공업고등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손익관계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가령 지금 설계비, 용역비, 제감정비 투입된 자금의 이자등 합해서 손실액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에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시고 그 다음에 인제 혜화학교 이전에 관해서 한가지.....

● 의장 김영세

저 이상일위원님 혜화학교 이전문

제는 이따 하시죠.

● 이상일 위원

이따 해요?

● 의장 김영세

예, 기계공고건만 하세요.

● 이상일 위원

예, 그 세가지만.....

● 의장 김영세

또 다음에 김응복위원 질의하시죠.

● 김응복 위원

김응복위원입니다.

이 공해 문제로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서 상공자원부가 공장부지를 그냥 팔려면 잘 안 팔리니까, 이것을 해제해가지고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래야 쉽게 매각이 되고 매각대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지 답변을 해 주실레로 서울에 그 원진레이온 공장 있는 법인데, 혹 그래도 이점은 다행스러웠다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다행히 교육부의 특별예산

배시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는데, 만일 불여의해서 자체 자원에서 청주공업고등학교를 건립한다면 기존

● 의장 김영세

저, 충북공고죠, 충북공고.

● 김응복 위원

예 충북공고, 특히 공업계통 실업 학교에 대한 기존학교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질문은,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제, 이런 그 차질이 왔음에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누가 책임을 질 문제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님 질의하시죠.

● 권혁풍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기계공고, 아 청주기계공고 이전에 관해서는 참 91년도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백지화가 되는데 참 옳긴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마는 어째서 이게 그 백지화가 되느냐,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그 유찰이 된 것이 원인일텐데, 그러니까 왜 유찰이 됐느냐하는데 있어서, 유찰이 직접원인이 됐는데, 입찰을 해서 땅을 필요한 땅을 팔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혹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그런것을, 또 이렇게 될 줄 모르고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너무도 업무추진력이 미숙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김응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참 충북인들이 관심이 깊고 중요한 문제를 그냥 수립, 계획수립했다 취소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순 없

습니다. 그 땅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매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을 시키게 된 그 원인은 준비가 잘못된 것이다, 그 준비를 왜 못했느냐, 업무추진이다, 업무추진미숙이다, 이렇게 볼때 거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거 하나 묻고요, 두번째는 이 기계공고 이전에 관한 얘기가 우리 교육위원회와 직접관련이 되는 건데, 교육위원회와는 그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도의회에 가서 먼저 보고가 되고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가 되짚는 이러한 그 순서의 잘못이라든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도, 교육위원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의회에 가서 보고가 되고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뭐했느냐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어제 그렇게 됐느냐하는 그 경위,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은 일괄질문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님께서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 청주기계공고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의장 김영세

예,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한 20분 정도만.....

● 의장 김영세

예, 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종지)

(11시 45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좌석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죠?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청주기계공고 이전문제가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취소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으로, 몇가지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희위원께서 말씀하신 “7월16일자 신문내용을 인정을 하느냐”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신문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저희들도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제보를 했는지, 그러나 사실은 신문내용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일한 것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 공고 이전을 완전취소하

는 거냐, 앞으로 그 “도시발전에 따라서 그대로 놔두는 거냐, 아니면 또 이전할 계획이 없는거냐” 그 말씀임 계셨는데, 이 문제는 동문회에서 그동안에 유찰이 됐고 이런 문제로 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현대화시설을 해다오”하는 요청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취소가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소가 결정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간담회석상이나 이런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문제는 그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질문하신 “용도변경이 우선돼야 하는데 절차를 밟았느냐”하는 거하고 결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7일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시청에 저희들이 냈으나, 현 부지의 향후 토지 이용계획이 없고, 제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개교 시점에 맞춰 신청하라는 사유로 92년 11월24일 그 공문이 반려됐었습니다.

시청측은 매수자가 정해져야 작성할 수 있는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요구하였으며, 매각대금으로 이전 신축비에 투자해야 하는 사정을 무시하고 개교시점에 맞춰서 신축토록 요구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전을 어렵게 해가지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92년 12월7일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청주기계공고 매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고, 이날 시청관계관은 소공원, 주차장, 도로등을 그 학교부지에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예산상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92년 12월 23일 시청에서는 향후 청주기계공고 부지에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청자체에

서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회관 건립, 국제수준의 교육박물관 건립, 종합 실업계고 교건립등의 의견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이었고, 93년 2월 17일과 93년 3월 5일 두차례에 걸쳐서 청주기계공고 부지매각에 대한 협의회를 시청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주기계공고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전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기존학교인 현 기계공고의 폐지와 그 매각대금으로 이전시설 계획에 충당한다는 계획이 전제되었으며, 주민의 공람, 관보공고, 신문공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제반절차를 마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 학부모등으로부터 기존학교의 폐지가 주지의 사실이었고, 현 기계공고가 매각이 된 다해도 이전까지는 약 2년 정도의 기

간이 소요되므로 현 부지의 세부이용 계획은 2년후에 확정될 것이며, 이 기간동안 매수 이용자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협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도로, 주차장, 소공원등으로 일부 조성하고 나머지를 분할해서 용도에 맞추어 매각을 요구하는 시청과의 향후 토지이용계획 제시요구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응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공고의 이전하는데 따른 그 손익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당초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은 청주기계공고를 최소한 270억이상 300억 정도에 매각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100억, 건축비165억 합계 265억으로 계획을 하고 잉여자금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되는 신설학교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93현재 이전계획을 검토하면 토지매입비에 120억 건축비에 370억 계 490억이 소요되므로 청주기계공고를

400억에 매각할 경우 전액 이전비에 투자하여 사실상 잉여재원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청주기계공고 이전에 투자할 370억을 신설학교인 충북공고에 투자하는 것이 자금 운영상으로 유리한 현실인 점입니다.

“전화위복이 혹시 되지 않느냐”하시는 말씀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 당시에 집행을 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팔지 않고 있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에 자체 재원으로 충북공고를 설립할 때 자원의 감소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금을 저희들이 영달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재원은 잉여자금으로다가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그 차질이 왔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관계는 이자리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지화의 원인, 즉 유찰이유와 준비가 잘 안됐었다. 즉 용도변경이나 조례개정등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도변경은 이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조례개정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입찰공고 결과 문의했던 업체들은 청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 기계공고 토지에 대한 자유스러운 건축이 어렵고, 즉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청에서 제시한 공원 조성, 주차장 시설 이런 문제로 자유스러운 건축이 어렵고, 또 수익성이 또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매수하고자 하는 그 업체들은 대금의 분할 납부 방법보다는 이전신축공사

를 수의계약으로 말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이런 그 조례를 선불리 개정할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는게 아니냐, 또 이러한 본건만을 가지고 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관한 문제를 도의회에서 먼저 보고하고 교육위원회에 인제서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먼저번 24회 회기에 이 이전문제를 보고하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에 이번 25회 임시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미뤘었던것입니다.

그중에 7월 13일날 저희들이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이유는 도에 의회에 그 교육사회위원이 전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그 위원들에게 그 관계기관에 업무를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현안문제로 이 사실을 보고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답변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가만있어 보세요

질문 더 하시.....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재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그때 제가 질문내용에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뭐 지금 관리국장님도 중대한 시행착오다하는 걸 인정을 하시고, 또 이 재정상으로 참 엄청난 손실도 가져왔고,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충북교육청의 위신도 상당히 손상됐는데, 이런 내용은 교육감님이 좀 의회에 보고할 성질이 아니냐하는 걸 한번 여쭙보지 않았습니까 고대 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 관리국장 신재철

예, 미처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응복 위원

가경동 부지에 신설할 공업고등학교의 특별교육교부금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신청, 올해는 안하셨는지.....

● 관리국장 신재철

신청을 지금 해 났습니다.

● 김응복 위원

해냈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김응복 위원

특별교부금 어떻게 거시기는 떨어질 것 같아요?

●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으로서 전망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필요성을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기회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 놓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응복 위원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한 유리한 여

건 조성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상태보다는 오히려 그 대지를 뭐 인제 여기에 따르는 추경도 뒤따르게 마련이죠?

예? 이번 추경에 뒤따르게 마련이 아니에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맞습니다.

● 김응복 위원

추경을 뒤따른다면 인제 거기에 부지정리라든가 여러가지 해 놓는 것이 교부금 신청에 유리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저희들로서는 유리하죠.

● 김응복 위원

유리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예.

● 김응복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손실 계산관계는 뭐 거시기 했는데, 다행히 370억 이 것이 팔지 않은 편이 그래도 조금 유리한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나름대로 듣기에는 그냥 편한 마음이 들긴 듭니다마는 이 손익계산에 거기

에 설계용역비, 감정비, 투입된 자금의 이자등 이것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 그거 보고말씀을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 습니다. 다만 청주 기계공고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가 2,268만6,000원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가 78만5,000원 도 합 2,347만1,000원이 현재 집행을 했는데, 이 매각입찰공고를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선행돼야 하므로 부득이 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은 집행을 했습니다.

● 김응복 위원

여기에 자금 투입되고 거기에 이자 관계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그런것까지 합친다면.....

(관리국장 잠시 답변 망설임)

자원에 대한 투자자원에 대한 그간의 묵힌 여러가지거시기로 생각한다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있을 건데.....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것은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건 계산 나오는 대로 하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의장 김영세

다음에 그럼 김응복위원 그것 이상은 없으시지요?

(김응복위원 “예”하고 대답)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상일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 이상일 위원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계공고를 매각하는데 말이죠, 그 지금 현재 조례를 안바꾸고 그대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매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계공고뿐만 아니라.....

조건이 그렇게 불리한데 요새같이 자금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 어떤업체가 선뜻 나서서 우리의 제시하는 조건만 가지고 거기에 따라오겠는지, 그리고 사실 이 관계기관하고

상당히 여러차례 협의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각공고를 하기 이전에 참 “이런 계획이 있는데 청주시에서 이걸 좀 도와줄 수 없겠는가” 해가지고 교육용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에서 매각공고 내기 이전에 한번 그런 협의를 진지하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했는데 그 협의는 매각공고 이후에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매각하기 이전에 전 관리국장님께서 그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2번을 가서 찾아가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지사님하고 그 시장님하고 같이 한거로 자리를 한 거로 아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계공고를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협조를 해다오”하시는 말씀을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하셨고, 저희 전임 관리국장님께서도 청주시장을 두번을 방문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도 좌우간 지방자치단체가 전

연 도와주질 않는 거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저희 현재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시청에서는 저희들이 땅도 매각하기 전에 그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해야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하고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저희는 그 땅을 전부 팔아서 이전을 해야 그 재원을 갖고 저쪽으로 공고가 이전이 되어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희들 땅을 맘대로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뭘 내라 뭘 내라”하니까 차라리 시청에서 사가지고 그러면 공원을 내든지, 도로를 만드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땅을 갖고 거기다 “도로를 내라, 공원을 조성해라,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니까 저희로써는 그 땅을 다 팔지 않으면 이전이 되질 않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 말이죠, 그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계약체결후에 저희들은 60일 이내에 대금 결재등을 까다로운 절차등을 했다 그 말씀이신것 같은데....

(이상일위원 “예”라고 말함)

재산매각대금의 납부는 그게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3항에 의거해서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일시 전액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 납부인 경우 매수자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어서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분할납부의 방법이 없....., 잠깐 기다려, 거시기 없습니까?

그 법전 가져와 보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아, 그 조례의 개정으로해서는 가능합니다.

조례의 개정을 해가지고는.....

그런데 조례의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 의장 김영세

이상일위원 발언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분명히 지금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거 내 시정을 시켜드리는데.....

분할납부의 방법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법에 허용된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안한 이유는 안일무사주의에서 본인들이 책임 안질려는데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누구고간에 대금을 60일내에 내고 2년후에 명도하란다면 누가 2년후에 재산 넘겨 받으면서 대금 60일 내에 갖다 낼 수 있는 조건이 누가 하겠어요?

세상 천지에 한번 내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다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그 아까 그 저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그 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조례개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는 어떤 특정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매각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관리국장 신재철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시다마는 이 당시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고나서 바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그 토지매각할 저희 학교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현시기 이런데서 지금 저희들이 그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임박해가지고 하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해가지고 그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을 하는데.....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아쉬운거는 저렇게 물건이 큰 것을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백억을 투자를 해 놓고 2년후에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그런거는 미리 좀 예견해서 어떤 업체가 얘기되기 전에 조례개정문제가 그때쯤 한번 거론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라도 그런거는 좀 담당자들이 주도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서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좀 철저하게 그런 앞을 내다보는 판단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보충질의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하시죠.

● 권혁풍 위원

지금 조례개정문제가 상당히 참 되고 있는데, 어째 이렇게 상식밖의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어째 그런 조례를 고칠 생각을 안합니까?

이건 상식과 너무나 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명도를 2년후에 하고 2개월내에 잔

금을 처리한다.

이건 처음부터 안 팔뜻이지, 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조례는 어떤 그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어떤 사안이 발생된 뒤에 하면 특혜의혹이 가지만 미리 그런 것을 고칠 것은 고쳐 놓고서 잘못된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우선 좀 하실 뜻이 없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그걸 “공원으로 조성한다든가 도로로 조성한다” 하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그 땅을 다 팔아야 저가서 새로운 학교를 세울 수 있다”하는 그 평면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부 도로든 주고 공원도 좀 만들면서 따라서 거기 땅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가 거기서 조성이 되고 공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땅값 상승도 있고 또 용도변경도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
가, 물론 구체적인 생각은 저도 못했
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도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두번째거 하고요, 세번째는 그 동안
에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감사가 왔으
리라고 보는데요, 아 왔다고 전 생각
이 되는데 거기서 무슨 지적사항이
여기 책임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
는가 교육부에서는 이걸 지적하지 않
고 책임도 추궁한 일이 없는가, 그걸
묻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도의회에 가서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됐다”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요. 또.....

뭐 대국민사관가 뭐 한번 하실때도
우리한테 그냥 먼저 말씀 안하시고
가서 도의회가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
리한테하는 그런 사례가 몇번 있었는
데, 이게 같은 식구라, 우린 같은 식
구라 참 임의롭게 봐주셔서 그런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회를 참 위상을
낮게 보시고 하시는 건지, 이 한번같

으면 모르겠습니까마는 혹시, 계속
번번이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 교
육위원들은 전부 업무에 대한 추진상
황도 모르고 도의회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이러한 그 변칙적인 사태가 자
꾸 계속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작정입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개정문
제는 지금 현재로는 어떠한 의혹을
살 그러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
씀하신대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나 공원을 좀 내주
고 팔으면 어떠냐』하시는 말씀이 계
셨는데 그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
는 임의로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굉장
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세제번에 교육부감사에서는
이 사항은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제번에 그 “도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후에 교육위원님

들께 보고를 하는 이유가 위원님들의 위상을 낮게 하는게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코 절대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에 크고 적고 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한은 먼저 보고를 드리고 도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보충질의.....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김광수

뒤늦게서 보충질의를 드리게 돼서 좀 미안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 계획에 보면 취소했다고 하는데 보면

이전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 목적이 내부시설의 노후화, 구식화로 효율적 실습이 어려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최첨단 시설을 확보하여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코자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전목적이 이렇게 뚜렷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능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적에 내부시설이 노후하고 구식화되고 효율이 없는데다가 그대로 거기다 뒀서 어떡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이전을 해야지 되지,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뒀서 학교의 기능이 발휘 못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전취소를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만 학교의 기능을 발휘 못할 건데 이대로 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그 저 질의에 “앞으로는 이전 계획이 없을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청주시에 앞으로의 발전이나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꼭 이전을 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 같습

니다.

이전 사항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앞으로 이전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대답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이전목적에 대해서 더 한번 분명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지금 저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부시설의 노후화, 구식화 돼서 옮긴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옮기면 활용할 수가 있느냐”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가 지금 “69억을 투자를 하면 내부시설의 노후화와 구식화된 것을 개수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하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 이 69억이라는 요구가 저희들한테 요구된 액수가 정당한 액순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69억보다 더 들어야 할 경우라면 더 보태서라도 현대화된 시설과 노후화를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 부의장 김광수

그 환경개선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 부의장 김광수

교육환경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주변여건이나 그 환경을

● 관리국장 신재철

주변여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건물의 노후, 또 내부시설의 이 구식화 이런거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액수를 투입해가지고 현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이게 근본적으로 이전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냥 하루 이틀 생각해서 이전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게 벌써 수년간 이 기계공고를 옮겨야 되겠다, 도심에 있기 때문에 학교도 노후화 됐고 거기다가 첨단시

설을 하기는 어렵고, 또는 교육여건 환경도 안좋고 이렇기 때문에 옮겨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벌써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청주시에 있는 모든 시민이나 또는 그 동문들이 또는 학교당국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운건데, 이것이 그냥 두어번 경매해서 구입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단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히 이전 목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좀더 참 더 연구하고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이게 매각이 될 수 있는 방법, 지금 답변에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어떤 방법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어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마는게 어디있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그 계획을 취소하게된 데 대

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 부의장 김광수

글쎄 지금 신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들이 좀 당시의 재무과장님 또는 행정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더 자세하게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제가 뭐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1년도에 계획을 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호황일때입니다.

그래서.....

● 부의장 김광수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누가 돈 내놓고 2년씩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사람 없어요.

또 교지로 그대로 둘 것 같으면요, 그 저 지목에 교지로 있을 것 같으면

학교가 이전한 다음에 그 용도가 뭐로 바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뭐 아뭏든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건으로는 그러한 실정이었고, 그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됐을 뿐더러 금년같은 경우에 특히 토초세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굉장히 조건이나쁜 그러한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참 어쩔수 없이 계획을 취소하게 된 실정입니다.

● 의장 김영세

자, 이 문제 결론 내시죠

예, 여하튼 결론을 우선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애초에 이전목적이 성립됐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전하도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직원들의 안일무사와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 또 그 이후의 추진과정에서 좀 더 성의가 있었어야 할 문제 등이 결여됐다는 점,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항상 추진상에 그 책임자 한 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

서 졸속하게 좌우대선 안되고 중지를 모아서 이래서 이것을 향방을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국장님께서 교육감이 직접·간접으로 교육위원회의 간담회석상에서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담으로 지나가는 말로서로 말은 오고 갔을런지 모르지만 공식성을 띤 간담회선, 일종의 공식성을 띤 간담회에선 정식으로 제기된 바가 없어요.

단지 지난 6월달 회기에 이 신재철 관리국장이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보고하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최초의 것이지 그 이전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좌우간 이것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중대한 시행착오를 범했다, 이것은 자인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시죠.

예, 그러면 청주기계공고 이전현황

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청주혜화학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국장님 앉아 계시다가 이따 답변하세요.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상일위원 말씀하세요.

● 이상일 위원

이상일위원입니다.

그 혜화학고를 그 이전학교로다가 계획을 세울때는 상당히 그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의무교육기관은 설립을 할 수가 있지만 특수학교는 설립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인 혜화학고를 세울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셨는지 여쭙는지 좌우간 이전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하신건지, 확인을 안하고 그냥 생각으로 이것도 교육기관이니까 설립이 되겠지하고 지레짐작으로 결정을 하신건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매사를 집을 짓더라도 개인의 집을 짓더라도 그래 건축허가가 나는 데인지 안나는 덴지 확인을 하고 하는 건데, 학교를 수십억을 들여서 옮겨가는 자리를 설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안하고 설계부터 돈을 쥐서 맡긴다고 하는 거, 이 앞뒤가 어떻게 이렇게 안맞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다 지금 법규로 보면 사실 그 혜화학고를 그쪽으로 질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기에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필요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될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낭비가 초래된 거로 아는데 대충 설계비라든지 기타 예산이 얼마나 거기에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도 학교가 이전이 안될 경우에 현상태의 그 학교를 무슨 저 보충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좁은 터에서 그게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이런 그 차질이 생긴거를 아까 그 교육부감사 얘기가 나왔지만 요 근래 교육부의 업무감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교육부의 업무

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았는지, 지적이 됐다면 어떤 문제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위원 질문.....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김사수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사수위원 “예”하고 대답함)

● 김사수 위원

김사수위원입니다.

이 혜화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행기관에서 좀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더 했더라면 이런 일이 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역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자존심관계 뭐 기관의 자존 이런 얘기도 어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이전문제로 인해서 공신력하고 기관의 위신이 상실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이전관계가 조용하게 이루어진게 아

니예요.

학부형들이 이전에 대한 진정도 줄기차게 냈고, 또한 도의회에 집단진정도 들어가서 도의원들이 현지 답사까지 해보고 이게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내적으로 여기서 뭐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떻게 그 이유가 그린벨트내에 다 학교를 질 수 없다, 특수학교를 질 수 없다 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서 이전이 안된다할 때 참 무계획한 행정을 했지 않았느냐하는 책임과 그 비판을 면할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현재 교부금이 9억이고 자체경비가 6억7,000해서 약16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교부금도 아마 목적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시설을 하려면 재원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다 자체 예산을 7억까지 들여가지고서 말하자면 현재까지 예산

을 활용 못하고 사장하고 있다, 이런 걸 불적에 예산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하는 책임도 역시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잠깐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대경비등 현재까지의 아마 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낭비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들어갑니다.

이러한 그 문제점을 살펴볼 적에 여기에 관계한 공무원들은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 이런일이 없도록 대오각성해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견지에서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나온 것 같은데,이 “그린벨트내 질 수 없다”하는 이 사실 이런 그 확인 과정이 볼 것 같으면 건설부에 대한 질의를 2월17일에 했습니다.

2월 17일에 할 게 아니라 이전계획

확정전에 실무자는 건설, 아니 그린벨트내에 학교가 있느니 만큼 여기에 신경을 쓰고서 관계법령을 숙지를 해가지고 여기는 질 수 없다하는 그러한 그 판단을 실무자가 했어야 옳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건설부의 질의서를 어찌 그때까지도, 그때까지 늦게 냈느냐하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부대경비도 현재까지 이전에 필요한 경비 투입액이 어느 정도 되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특별목적교부금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을 적에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무진장하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리라고도 생각되는데,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해 주시고, 또 향후의 대책에 대해 볼 것 같으면 1,2안이 다 별로 자신이 없는 안입니다.

그러면 확고한 그 대책을 세우셔서 이 안을 확정져야 될텐데, 지금 현재도 아직 여기에 대한 1,2안만 내놓으

셨지 확실한 대책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그 행정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냐하는 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예, 또 예, 이재희위원 질의하시죠

● 이재희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직제상에 법제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제계 그 사무분장 내용은 무엇이고 이번 해화 학교이전에 계장도 같이 협조날인도 찍는지 그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세요.

● 권혁풍 위원

참 그 일이 꺼꾸로 된 것 같습니다
청주기계공고도 그렇고 이 해화학
교도 그렇고 이전을 계획할 당시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먼저 그 시행규
칙을 검토해보고 가능성이 있느냐 없
느냐를 가리고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꺼꾸로 되니까 전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왜 꺼꾸로 했는가,
그 도시계획법도 검토 안해보고서 시
작을 한 그 원인이 뭔가, 무사안일에
있는가, 아니면 무계획성에 있는 건
가 그걸 좀 한번 여쭙보고요, 그 다
음에 그 향후 대책에 1안,2안이 있는
데, 1안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렇
게 나왔습니다.

“구암분교로 계속 추진하겠다” 근
데 지금 정부에서는 건설부에서 발표
하기를 그린벨트에도 상당히 그 제한
이 완화가 되긴 됐습니다마는 취락지
에만 가능한 것 아니냐,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또 구암분
교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뜻인지
법규상 불가능한데 법을 고치기 전에
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계속 또 구암분교로 추진을 하겠다”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또 2개년 정도는 중학부과정 수용

엔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2개년후에는 이학교를 폐쇄시킬건가. 2개년후 먼 앞날을 내다보고 생각을 하셔야지, “2개년까지는 되는데 그 뒤론 생각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많습시다.

그 “적정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한다.” 또 2안도 나오셨는데, 그 터가 한 2,000평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학부까지 수용이 되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그 학교는 부적합지가 아니냐, 거기다가 또 아파트도 서고 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어차피 옮겨야 될 판인데, 어찌 향후 대책이 1안 2안 서가지고서 확고한 그런 계획이 아직도 서있지 않고 뒤있는 상태입니다.

그 확고한 대책, 2년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미리 지금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어때요?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앞에 나와서 여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아주 곤혹스러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했다면 오늘 이러한 질타가 없었을 텐데, 저 자신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생활 30년이 넘게 했습니다. 마는 오늘같은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것이 참으로 저의 입장으로서는 비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먼저 이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혜화학교의 이전의 법적 가능여부 확인 문제입니다.

이 혜화학교는 사실은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는 교육법 8조 및 96조에 의한 의무교육, 즉 국민학교 및 중학교입니다.

대상학교일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진

홍법제 5조에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국민학교, 국민학교분교장 및 중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된 조항은 특수학교이지만은 의무교육대상학교로 당연히 국민학교라고 볼 수가 저희들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새로운 학교부지를 시설 결정하는 것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학교가 폐지되어서 그 부지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이 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계획수립후 건축시행과정중 청원군청과 건축협의 절차에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7조1항3호 라목의 규정에 특수학교의 적용여부를 놓고서 해석이 어려워서, 그동안에 도에서 아니면 청원군에서 도로, 도에서 다시 청원군으로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한 청원군에서는 청주시로 보내고 시에서는 청원군으로 보내고 그 동안에 우여곡절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해석을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그것은 물론 문서는 아닙니다마는 말로 된다고 해서 올리니까, 또 “안된다.” 그러면서 “내 관할구역이 아니다.”해서 시에서는 또 청원군으로, 청원군에서는 다시 도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청원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군청과 협의, 건축협의 절차에서 아까 말씀드으신 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7조1항 3호 라목규정에서 특수학교의 적용여부를 놓고서 그 해석이 아주 그 어려우니까 도청으로 아까 말씀대로 질의를 하고 도청에서는 이러한 또 선례가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민원계하고 저희들이 낸 게, 민원이라고 해석을 해서 연기 조치를 해줘가면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최종회신한 내용이 그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7

조1항 3호 라목의 규정은 “특수학교를 국민학교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하면 “특수학교가 의무교육대상인 것은 아는데, 특수학교라는 명칭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애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설부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요전에 7월8일자에 동아일보, 경향신문등에 나온 것을 보면은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에 이 문제를 언급을 해서 가지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국민학교, 중학교만 되어 있는 것을 특수학교, 고등학교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이 지금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으로 볼 때 저희들은 불원간에 이 사항이 타결이 되지 않을까해서 여러위원들이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만일에 안될 경우에 현 위

치에다가 보수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지만 그 방법보다는 제1안으로 먼저 내놓은 것은 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등 예산액에 투입된 그 내용은 설계비가 현재 2천780만원을 들어서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거론이 됐거나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사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내에서 설치할 수 없다는 질의를 이전 확정전에 했어야 옳는데 어찌 늦게 질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의무교육이기때문에 특수학교가, 저희들은 당연히 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늦게 하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비내역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목적경비 불사용시 예산조치는 이게 저 특별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불원간에 개정이 되면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서 만일에만 부득이 할 경우 안될 때에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여부는 지금현재 법적 해석때문에 이러한 난관에 봉착은 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미비점을 저희들이 발견치 못하고 시행했다는 것에는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대한 과실까지로 저희들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무계역할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법무계에서는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는 것이 법무계에서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

에 법무계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
니다.

다음 권혁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행규칙을 검토후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 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이유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처리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향후대책은 불원간 이 법이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봐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도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착공을 하겠고,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년까지는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는 말씀은 현재 그 구 건물에서 사용을 해도 2개년까지는 괜찮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년까지 옮기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곳에 지금 현 위치에 증축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

으로 그런 뜻으로 2개년까지는 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 이 문제도 그럼 결론을 내리죠 먼저 본인이 좀 얘기좀 해야겠습니까.

신재철국장께서 전임자가 한 행적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참 욕도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아마 참 대단히 서글픈 감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동정을 금치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여하튼 현재 직책이 전임자의 행적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해화학교처리문제도 이 청주기계공고 이전문제보다도 더 큰 시행착오입니다.

이 그린벨트의 시설통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비단 여기 집행청직원들이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내 말이 틀린가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특수학교가 의무교육기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도 법규해석이 미흡했던 점이고 그 보다도 의무교육기관을 교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린벨트에 시설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허가권자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건설부장관이에요.

건설부장관이 이제까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내려 준데는 서울의 4개학교 외에 없어요.

서울밖에.....

경기도가 이웃 경기도가 지금 굉장히 학교 교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아니면 거기는 지금 의무교육기관이 무수하게 늘어가는데 시설할 곳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도 시설해 준 게, 건설부장관이 허가해 준 예가 없어요 현재 법규상에 허용돼 있는 범위도 건설부장관은 허용을 안해 주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이유는 되도록이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거예요.

한 예로 우리 청주시가 시행착오를 범한 걸 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린벨트의 시설허용조항에는 의무교육기관이전에 체육시설이 제일 유리 합니다.

이 체육시설도요, 우리가 저 올림픽에서 2관왕이 된 김수녕양궁장을 시설하는데 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린벨트에 김수녕양궁장을 시설하려고 체육부장관 허가까지 났어요.

체육부장관 허가까지 났는데 그것도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결국은 탄대로 이전해 가지고 지금 이제 늦어지고 이제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통례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비록 이것이 규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지역이외의 유휴여타의 용지가 있다면 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그린벨트지역 아니면 도저히 입지조건이 안된다, 이 때만이 허용되는

법의 취지가 규정의 취지가 그렇게 돼있는 게요.

이 서울의 4개학교가 그 허용된데는 바로 현재 학교가 그린벨트에 접해 있어요.

접해있고 또 그린벨트지역에 취락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아니면 거기에 국민학교가 세울 수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허용돼 있지, 경기도도 한건도 허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특수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기관이라손 치더라도 현재여건으로는 이걸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통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숙지했다라면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안세웠을거다, 이런 애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금 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미리 그 관계조항이나 이런 취지를 잘 검토해보지도 않고 설계 먼저 딱 갖다 맡겼으니 지금 양쪽에서 설계비, 감정비 허비한 것만 해도 5,000만원이 넘어요.

5,000만원이 넘는다면 지금 우리가

교실난에 허덕이는데 교실 몇 칸 집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 경비를 낭비한 이 책임은 누구든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책임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 시행착오 범해가지고 낭비해도 책임질 사람은 없는거나, 이런 애깁니다.

또 하나 문제,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사로 지적을 하였어야 옳을텐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못보고 지적을 안했다면 그 감사한 사람들이 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제 이런 것 조차도 지적을 못하고 감사반이 뭐 보고 갖기에 말씀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감사에 마땅히 지적이 돼야 할 사항인데, 어찌 지적이 안됐다고 답변했는데, 좀더 두고 볼 숙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도 기계공고보다는 오히려 더 이걸 “담당직원들이 소홀로 인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범했다.”

이것을 자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전철 밟지 않도록 해 주시고, 비록 규정이 이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질 수 없는 통례가 나와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시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혜화학교 이전에 관한 질의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

(12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청주기계공고이전안에 연결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로서 충분히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문이외에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뭐 미리 다 질의하셨으니까 예,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까.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질의로서 다 확인했고, 또 뭐 집행부가 이전하려고 계획을 확고히 세웠으니까, 뭐 여기서 사실은 반대 토론하실 수도 없을 것으로 뭐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없으

신겁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설립 계획안

(12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상일위원 말씀하시죠.

● 이상일 위원

이상일위원입니다.

청주공고이전 예정지로 구입했던 가경동 부지에 충북공고를 설립하려고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53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돼있는데, 이 재원이 순조롭게 잘 조달될 수 있는 건지,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보면 교육투자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35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과연 순조롭게 잘 조달될 수 있을런지 하는 것을 참 알고 싶고요, 두번째로 현재 우리 도내에 실업계고등학교 시설현황을 보면 기준치에 훨씬 미달되고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공고에 그 기계과나 전자과 그 실습실에 보면은 투자가 상당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실업계고등학교라도 충주농고를 보면은 농고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20년전에 지은 낡은 온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온실이지, 난방이 안돼가지고 2월달에 가보니까 화초가 다 얼어 죽었어요.

그 시커먼 이파리를 달고 있는 온실을 봤는데, 이게 개교60년을 자랑하는 충주농고의 형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존의 공업고등학교 또 농업고등학교에도 시급히 투자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제쳐두고 3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공고를 설립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나 학교간의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세번째로 가칭 충북공고의 설치과목을 보면은 전자기계과, 기계과 금형, 정보통신등 최첨단 학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학현황으로 보아서 과연 최첨단학과를 이수할 수 있는 유능한 학생들을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신설 예정된 충북공고의 그 학급편성을 보니까 완성년도에 가서 48학급에 약 2,3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2,300명씩 모집을 했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이 첨단신설학교로 다 모일 경우에 여타 공고에 인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런지, 또 다른 공고에 질적저하가 우려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세가지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죠?

● 권혁풍 위원

그 위치로 봐서 청주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즉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점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가, 그거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비슷한 얘긴데요, 학생의 수급상태는 어떤건가, 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국장을 향해)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좌석에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 의장 김영세

뭐 한 1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예."하고 대답)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8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공고에 353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의 확보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 금년도에 23억 그 다음에 94년도에 61억, 95년도에 67억, 96년도에 93억, 97년이후에 100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자하며 나머지 부족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둘째번에 "기존의 공고나 농고에

투자할 예산이 많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충북공고에 투자하면은 다른 데에 부족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그 확충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2년도에 국고가 지금 실업계에 온 것이 24억이 투자가 돼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17억의 배시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농고나 공고에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과설치에 유능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또 타공고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공고는 현재 학교별로 그 설치학과가 특성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충북공고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그 인근에 세광고등학교가 이미 이전을 해있고 시에서 그 도로가 충북대학교 병원앞으로 나있는 도로가 4차선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중교통수단, 즉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의 수급상태를 말씀드리면 94학년도에 도내 중학교 졸업자 수는 93학년도에 비해서 1,960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주·청원지역에만 약 65%를 점하는 1,267명이 증가합니다.

그 해소 방안으로 충북공고를 신설해서 학년당 12학급 624명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학급 증설 2개학급에 92명, 상업계 정원조정 즉 46명을 49명으로 늘려서 108학급에 324명, 공업계 정원조정 50명을 52명까지 수용

하는 방안으로 해서 113학급에 226명
그래서 1,266명을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에 수용률이
95.3%에서 94년도에 94.9%, 95년도에
93.8%로 점진적인 수용률을 저하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
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권혁풍위원

거기는 뭐 진입로 들어가는덴 문제
가 없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저희들이 그 진입로는 바로 인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설계할 때에 아
직 그 충북공고는 설계가 안돼있습니
다마는 진입로를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린벨트하고는 거기 거리가 어떻
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 권혁풍위원

완전히 면했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의장 김영세

또 보충질의없습니까?

다 답변이 됐습니까?

뭐 이미 이 문제는 청주기계공고이
전문제와 연관이 되고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안이 취소되는 것을 여러분
이 양해하신이상 그대로 이게 불가피
하게 시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합니
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
하세요.

예, 반대토론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

<p>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p>	<p>하는데 기타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폐회)</p>
<p>○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p>○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현,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p> <p>○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 2. ○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설립계획안 : 별첨 3. ○ 교육행정 사무처리상황 보고 : 별첨 4</p>	

議 事 日 程 (案)

第 25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3. 7. 21. - 7. 22. (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3. 7. 21 (수) 14:00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2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3. 중북공업고등학교(가칭) 설립계획안 제안설명 4. 교육행정 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 정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 취소에 관한 사항 ○ 정주혜화학교 이전 추진현황에 관한사항 【제1차 본회의 산회】	회 기 7.21.-7.22. (2일간)
7.22(목) 10:30	【제2차 본회의 개의】 1.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2. 중북공업고등학교(가칭) 설립계획안 의결 3. 교육행정 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4. 기타안건 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회	

의안번호	재강-2호
연도	1993.
구분	(재 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7. .

'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5-2
----------	------

제출년월일 : 1993. 7.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도유(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유(교육)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변경내역

- 취득

(단위:㎡/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강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70,636	14,917,795	70,636	14,917,795	0	0
건 물	73,480.92	26,148,860	73,480.92	26,148,860	0	0
공작물	1 식	3,500	1 식	3,500	0	0
계		41,070,155		41,070,155		0

- 처 분

(단위:㎡/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강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168,703.9	4,030,772	134,813.3	2,773,432	△ 33,890.6	△ 1,257,340
건 물	34,570.63	2,557,707	13,522.24	529,191	△ 21,048.39	△ 2,028,516
공작물	37식	30,645	14식	5,858	△ 23식	△ 24,787
계		6,619,124		3,308,481		△ 3,310,643

* 해당금액은 자산대장가액임

- 무상사용건가

(단위 : m²/천원)

구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부지	648,985.16	91,375	648,985.16	91,375	0	0
건물	22,839.24	98,916	22,839.24	98,916	0	0
합계		190,291		190,291		0

- 무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부지	89,475		89,475		0	
건물	7,278.6		7,278.6		0	

□ 제안 근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내역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93. 공유제산관리계획변경계획내역

(단위 : m²/천坪)

예산번호	학교명	사업명	당첨		추진		변경		잔액		사유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시	진주시계곡고	토지매기	33,890.6	1,257,340	0	0	△ 33,890.6	△ 1,257,340			이전계획취소	배치도 5쪽
건물	"	건물매기	21,048.39	2,028,516	0	0	△ 21,048.39	△ 2,028,516			"	"
공지물	"	공적물매기	23식	24,787	0	0	△ 23식	△ 24,787			"	"

* 총감금액은 세신대정가격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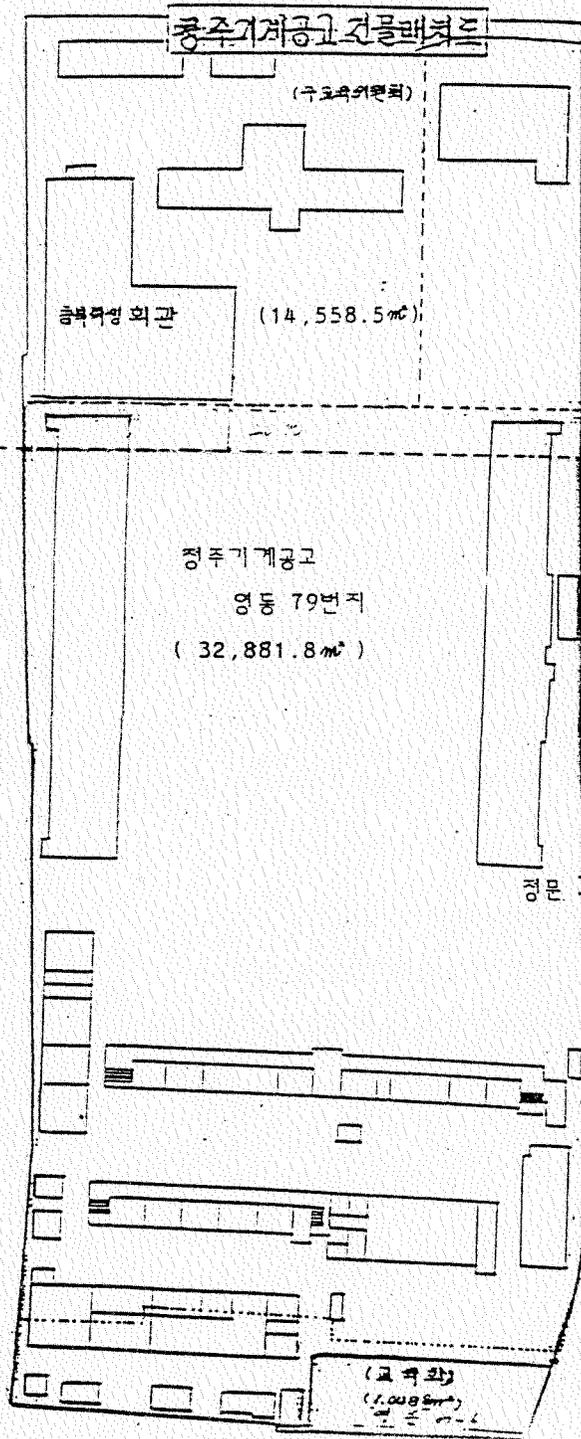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관리계획과 처분결과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내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②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내부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매각대상 재산

1. 토지
 - 영동 79번지 32,881.8 m²
 - 영동 87-6번지 1,008.8 m²
 - 계 33,890.6 m² (10,252평)
2. 건물
 - 21동 21,048.39 m²
3. 공작물 : 23식
4.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약 900평)

(별첨 3)

의안번호	제 25-1 호
의 결	1993. . . .
년 월 일	(제 회)

충북공업고등학교 (가칭) 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7. . .

충북공업고등학교(가칭) 설립계획안

의안 번호	25-1
----------	------

제출년월일 : 1993. 7.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설립목적

- 정부의 실업계학교 육성계획에 부응하고 '95학년도에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함.
- 첨단학과 설치로 2000년대 필요한 유능한 기능인 양성
-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교육기회 확대 (직업과정 부설)

□ 주요내역

- 학 교 명 : 충북공업고등학교 (忠北工業高等學校)
- 설 립 자 : 충청북도(忠淸北道)
- 위 치 : 충북 청주시 가경동 666번지 일대 (94,560㎡)
- 설치학과 및 학급수

학 과 명	학 년 별 학 급 수		비 고
	1단계 ('95-'97)	2단계 ('98년이후)	
기 계 과	3	4	
전자기계과	3	4	
금 형 과	3	4	
정보통신과	3	4	
계	12	16	

o 부설직업과정 운영

과 정 명	학 급 수	비 고
자동차정비	1	'97.개소 예정
배관·용접	1	
CAD / CAM	4	컴퓨터에 의한 설계·공장자동화
전 자	2	
계	8	

- o 개교예정일 : '95. 3. 1.
- o 소요예산 총괄현황 : 별 첨
- o 자금조달계획 : 자체재원 및 교부금으로 충당

□ 참고사항

- o 근거법령 : 교육법 제82조 제1항
제82조 (설립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

○ 연도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별 확 보 계 획					
		계	'93	'94	'95	'96	
총 북 공 고	건축 공사	18,310,690		3,678,280	3,649,060	3,560,590	7,422,760
	토목 공사	2,109,000	1,979,000			130,000	
	전기 공사	1,104,000		394,000			710,000
	시설부대비	1,370,057	351,000	351,500	262,000	363,500	42,057
	내부 시설	6,384,467		1,408,070	2,535,681	1,451,386	989,330
	비품 구입	105,100		15,900	37,150	36,350	15,700
	기 타	865,250		288,750	249,000	254,750	72,750
	소 계	30,248,564	2,330,000	6,136,500	6,732,891	5,796,576	9,252,597
부 설 직 업 과 정	건축 공사	3,591,000				2,547,500	1,043,500
	시설부대비	309,698				217,652	92,046
	내부 시설	1,192,070				749,220	442,850
	비품 구입	28,100				18,750	9,350
	소 계	5,120,868				3,533,122	1,587,746
계	건축 공사	21,901,690		3,678,280	3,649,060	6,108,090	8,466,260
	토목 공사	2,109,000	1,979,000			130,000	
	전기 공사	1,104,000		394,000			710,000
	시설부대비	1,679,755	351,000	351,500	262,000	581,152	134,103
	내부 시설	7,576,537		1,408,070	2,535,681	2,200,606	1,432,180
	비품 구입	133,200		15,900	37,150	55,100	25,050
	기 타	865,250		288,750	249,000	254,750	72,750
합 계	35,369,432	2,330,000	6,136,500	6,732,891	9,329,698	10,840,343	

1993. 7. 2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 취소
- 청주혜화학교 이전 추진현황

충청북도교육청

I.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 취소

1. 이전목적

내부시설의 노후화, 구식화로 효율적 실습이 어려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최첨단 시설을 확보하여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코자 함.

2. 추진상황

- '91. 1. 17. 기계공고 동문회의 이전 건의서 접수
- '91. 4. 10. 이전 타당성 검토
- '91. 6. 28.
- '91. 8. 20. 위치변경 계획(안) 확정
- '91. 12. 14. 부지 매입 : 94,560㎡ (28,604평)
- '92. 12. 22.
- '92. 10. 27.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및 고시
- '93. 2. 23. 2차에 걸쳐 입찰 : 응찰자 없어 유찰됨.
- '93. 3. 16.
- '93. 4. 9.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측에 매입 의사타진
: 매입 의사없음.

3. 매각 지연에 따른 학교장 및 동문회 의견

- 현 위치에서 현대화 시설투자 요구 : 69억
- 투자소요액은 검토후 예산반영
- 학교장 및 동문회 건의문 사본 : 불임

4. 청주기계공고 이전 취소사유

- 청주기계공고 매각 불가능
- '95년 수용계획상 신설요인 발생
청주신산업기술도시구역내 설립키로 한 충북공고를 청주기계공고 이전 부지에 설립 추진 (청주신산업기술도시의 건설 지연)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동 문 회

360-020 / 청주시 영동 79번지 / ☎ 57-7301-4 (0431) / 전송 57-7305

문서번호 : 청공동93- 06 -

시행일자 : 1993 5. 25.

(경 유)

수 신 : 충청북도 교육감

참 조 : 관 리 국 장

세 목 : 모교 발전계획 건의

선 결	교육감	12	지 시	
집 수	일자	93.5.26	결 재 공 람	부교육감
	번호	1428		관리국장
처 리 과	행 정 과			행정과장
담당자	서대훈			행정계장
	예산계장			과학기술과장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님의 노고에 깊은 시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이니옵고 청공동 91-1(91.1.14.)로 건의한 청주기계공고 이전에 대한 건의내용에 대하여 본 동문회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건의내용에 부합되는 학교이전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 청주시 기경동 산 198-2번지 소재의 전,답, 임야등 28,600평을 매입 등기하고,
-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 학교발전 계획에 의거 기실계하는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동문회 건의내용 충족과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에 의거 자금형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 1993.2.23. 1차 관보게재 매각공고하였으나, 등록자 전무하여
- 1993.3.16. 2차 관보게재 매각공고하였으나, 등록자 전무하였으므로,
- 전국유명 기업체에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을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문의자가 1명도 없는 상황이므로 매각하여 자금형성을 한후, 재투자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기공 399(93.5.17.)로 접한바 있어, 청주기계공고 총 동문회원들의 수렴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전달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보다 발전된 교육의 장이 제창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첨부: 1. 청주기계공고 총 동문회 의견수렴건의문1부.
2. 청주기계공고 시설 현대화 계획(안) 1부. 끝.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총 동 문 회



모교발전에 관한 건의문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충청북도 교육청 관계관님의 노고에 깊은 사리를 포함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청공동 (91-1)(91.1.14.)로 건의한 청주기 계공고 이전건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리면서 건의합니다.

- ∴ 모교 이전계획 청공동91-1(91.1.14.)로 건의한 사항은 백지화하고,
- ∴ 열악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투자
요망합니다.

2. 건 의 사 항 :

1. 교육환경 개선
2. 친철단 실습기자재 확보
3. 강당 및 도서관에 대한 학교 소유로의 원상 회복
4. 노후 기자재 교체

청주기계공고 시설 현대화 계획 (안)

구 분	내 용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동 현대화, 외곽시설의 정비
실험실습동 신축	최첨단 실습실 확보
특별교실 확보	과학실, 도서실, 시청각실, 회의실
최첨단 실습기자재 확보	선반교체, 방전가공기, 로봇용접기, 컴퓨터, 노후밀링교체, 수치제어기자재.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360-020 / 청주시 강릉 79번지 / ☎ 57-7301-4 (0431) / 전송 57-7305

문서번호 : 청기공 12710-421

시행일자 : 1993. 5. 24. (3)

장 소 :

수 신 : 충청북도 교육감

참 조 : 행정과장

제 목 : 학교발전계획 보고

신	교육감		시	
길	AS		시	
접	일자	P3. 5. 24	길	부교육감
	시간		새	관리국장
수	번호	1420	공	행정과장
			람	행정계장
처	리	행 정 과		
리	과			
담	당	서 24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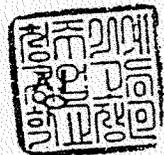
예산계장

과학기술과장

본고 발전위원회의 협의에 의거 학교발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 학교 발전 계획 1 부 끝.

청 주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II. 청주혜화학교 이전 추진현황

1. 이전목적

- 향후 중등부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곤란
- 학교주위에 고층아파트와 주택의 밀집으로 교육환경 열악
- 장애자에 대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특수교육 기회 확대

2. 학교현황

○ 학생 및 교직원

'93. 6. 30. 현재

유 치 부		초 등 부		교 직 원				설립년월일
학 급	학 생	학 급	학 생	교 원	일반직	기능직	소계	
1	7	7	55	12	1	9	22	'88. 3.

○ 주요 시설현황

교 실					화장실	숙직실	부 지 (㎡/평)
보 통	특 별	관 리	보건위생	계			
7	7	1.5	0.5	16	1.4	1	6.353/1.922

3. 추진과정

일 시	주 요 내 용
'92.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혜화학교 이전계획 수립 - 이전 위치 :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275번지 남이국교 구암분교장('92. 8. 1. 폐교) - 이전예정일 : '94. 3-9월
'92.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경비 교부금 확보 (1,603,340천원) - 교 부 금 : 932,000천원 - 자체재원 : 671,340천원
'93.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 신청(도교육청 → 청원군청)
'93.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혜화학교 이전에 대한 질의 (청원군청 → 충북도청 → 건설부) - 내용 : 개발제한구역내에 특수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93.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직원 건설부 방문 이전현황 설명
'93.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내용 회신(건설부 → 충북도청 → 도교육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에 의거 현행 규칙상 개발제한 구역내 특수학교는 신축 불가 회신
'93.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 규칙 개정 건의(도교육청→교육부→건설부) - 근거규정 : 도시계획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7조 1항 3호 -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내에 국·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도 신축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신축대상 지역을 리(里) 지역까지 확대 ·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미 있던 학교가 폐교된 후 그 부지내에 특수학교 신축 - 현재 건설부에 계류중

4. 향후대책

- 제 1 안 : 당초 이전예정지(전 구암본교장 자리)로 계속 추진
 - 문제점 :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이 상당 기일 소요 예상
 - 대 안 : 이전 추진 1년간 유보
(향후 2년 정도 중학부과정 수용에 지장은 없음)
- 제 2 안 : 현 혜화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수용

충북공고 설립 위치도

면	경
대	정
대	지
대	지

설립예정지

